전북
회화

# 전북회화

# 이천이십년 12월

제27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 회화회는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전북회화회 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 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 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미술의 구조적 이해"에 대하여
- 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 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전시장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
(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 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 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사: 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 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 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청 세미나(주제: 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청강사: 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 청특강 (주제"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 3. 31 백제대학 기획 대전- 도예의 숨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 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홍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
(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 김영애, 윤호, 이혜련, 최윤경, 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 30-12. 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케치여행(구 ,산동)
2004. 6 정기모임: 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 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
-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 1. 26 뉴 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 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회(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 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 9. 2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 (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원 (송현성)
2013. 12. 10-15 정기 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 모임 (신입회원 : 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 전시회(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대전 (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 (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 모임
2015. 12. 10-2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2016. 11. 18-12. 9 정기 전시회(갤러리 누벨백)
2016. 12 통권 제23호 발행
2017. 12. 1- 8 정기전시회(남원 예가람길 갤러리)
2017. 12 통권 제24호 발행
2018. 2. 10 정기총회
2018. 4. 11 정기모임 - 송태정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6. 28 정기모임 - 박지예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0. 24 정기모임 - 박성수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1. 13-22 정기 전시회(누벨백 미술관)
2018. 12 통권 제25호 발행
2019 신입회원 (김준근, 박종갑, 오송규, 윤대라, 임진성
임 효, 임희성, 조병완, 최창봉)
2019. 1. 3- 4 동계 워크샵 (여수)
2019. 5. 7 정기모임
2019. 7. 3 좌담회 준비회의
2019. 7. 16 좌담회(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과
전북회화회의 발전 방안 모색)
2019. 9. 23 회의 (30주년 기념 전시 및 회화회지)
2019. 10. 2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19. 11. 17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19. 12. 12-21 전북회화회 30주년 기념 전시(누벨백 미술관)
2019. 12 통권 제 26호 발행
2020 신입회원 (김지현, 박방영, 이지희, 이호억, 진희란, 박두리)
2020. 1. 10 정기모임
2020. 7. 30 정기모임 (전북회화회지 및 정기전시 관련 회의)
2020. 11. 7 정기모임 (완산가/아트커뮤니케이션)
2020. 12. 5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논의)
2020. 12. 6 편집위원회의 (회화지 교정)
2020. 12. 12-19 정기전시 (누벨백 미술관)

# CONTENTS


2020 오늘의 작가

04 김준근
05 가 득
06 박두리
07 박방영
08 박성수
09 박종갑
10 박지예
11 송태정
12 송화정
13 안순금
14 오송규
15 윤대라
16 이명자
17 이승훈
18 이지희
19 이진숙
20 이철량
21 이호억
22 임진성
23 임 효
24 임희성
25 조병완
26 진희란

27 찾아보는 역사
29 김대현(고석산방 대표)
31 서정만(에이옥션 대표)

2020 전시 리뷰
33 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전북도립미술관)
34 송지호개인전(숨갤러리)
35 박두리개인전(SHINSEGAE GALLERY)
36 박지예개인전(누벨백미술관)

37 특별기고
38 전북도, 예술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격 지급
39 소외된 감정의 시각적 재현에 대해(박두리 회원)
40 완산가에서 미술놀이(송태정 회원 )
42 고흐 & 최북의 자화상(이종근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국장)
45 기억을 통한 이상화 된 수묵 산수 연구(이지희 회원)

# 김준근 Kim Jun-Keun



**기억여행2020-엄마의꽃밭** 53x73cm 석분, 토분, 담채 2020

장독대 뒤 자그만 꽃밭은 유년의 기억들이 저장된 추억의 장소이다. 그곳은 봄소식을 알리는 새싹들과 마주하는 엄마의 노천카페이기도 했다. 아련한 기억속에 남아있는 엄마의 꽃밭을 오늘도 조용히 들여다 본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미술학박사), 국내외 개인전 24회(metalos/파리,워싱턴주립대학Museum/미국,서일본컨벤션센타/일본), LA한국문화원 초대전 (LA한국문화원 초대전/미국), MBC 미국개국기념 한국미술 대표작가전 (귀넷몰콘서바토리 아트홀/미국), 2009 피스드림아트페스티벌 현대미술제(Fundasion Tres Cultoras/스페인 세비야스), MUSEO DEL MARMO초대전(MUSEO DEL MARMO/이탈리아), 파리앙상블 초대전(Euni Ahn Allard 갤러리/프랑스), 한국기초조형학회 산호세대학 초대전(San Jose State Univ./USA), 문명의 기억과조형(주멕시코한국대산관문화원), 바로셀로나국제작품초대전(IED대학/스페인) 현)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M.P_ 010-2426-2632 E-mail_ nature@cbnu.ac.kr

# 가 득 Gadeuk



Paul, John, Chihyeong 40x160cm 혼합재료 2015

나무가 뿌리를 감추는 것은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요
진리의 생명은 본디 깊은곳에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것. 인간은 이 두가지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하지만 분명히 존재 하는곳, 그리고 존재 하는것.

9살 무렵의 나는 거울을 보기를 싫어 했고 두려워 했다. 어느날 갑자기 거울속에 비친 육체는 나의 모습이 아닌 더 강한 존재의(하지만 그것이 심장인지 세포인지 도무지 어디에 존재 하는 지는 알 수 없는)본질적인 나의 모습으로 느껴졌다. 그 이후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누구나 느끼고 있지만 확신하기 어려운 진리, 나에게이 진리는 존재의 이유가 되었다.

나는 묵상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특정 사람이나 현상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 되어지는 진리, 기억, 존엄성, 영향력, 영혼, 사후 세계 및 영적 세계를 회화, 설치 그리고 영상으로 시각화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에서 '사람'과 '보이지 않는것'을 연결하는 느린 형태의 예술작품과 공간을 형상화한다.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 한국화과 박사, 서울 (재학), 브라이튼대학교 순수미술전공 석사, 브라이튼, 영국,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학사, 서울, **개인전** 2018 삶의 파도, 공간:일리, 서울, 2017 삶의 파장, 커피식탁, 서울 , 2015 가치있는 삶, 샐모네키친, 서울, **그룹전** 2020 현동 김광옥 퇴임전, 잠월미술관, 함평 , 2019 무제, 브라이튼 대학교, 브라이튼, 영국 , 2019 128쇼, 브라이튼 대학교, 브라이튼, 영국, 2019 르 살롱 얼터너티브, 브라이튼 대학교, 브라이튼, 영국, 2018 128쇼, 브라이튼 대학교, 브라이튼, 영국, 2018 삶이 된 풍속전,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 광주 외, **프로젝트** 2012 '3513부대 보병 제6사단 군부대 역사관 만들기', 국가산업 에이스(ACE), 2012 '다문화가정 아이들 미술치료', 국가산업 에이스(ACE), **정기간행물** , 정애경, 인터뷰, Luxury, 'Cosmetic + Art', 서울, 6월 2019년 , 박은지, 인터뷰, '예술에 빠지다', 7월 2018년 , 황수경, 글, '공간 일리', 10월 2017년E-mail_ gadeuk1@naver.com https://gadeuk.creatorlink.net/

# 박두리 Park D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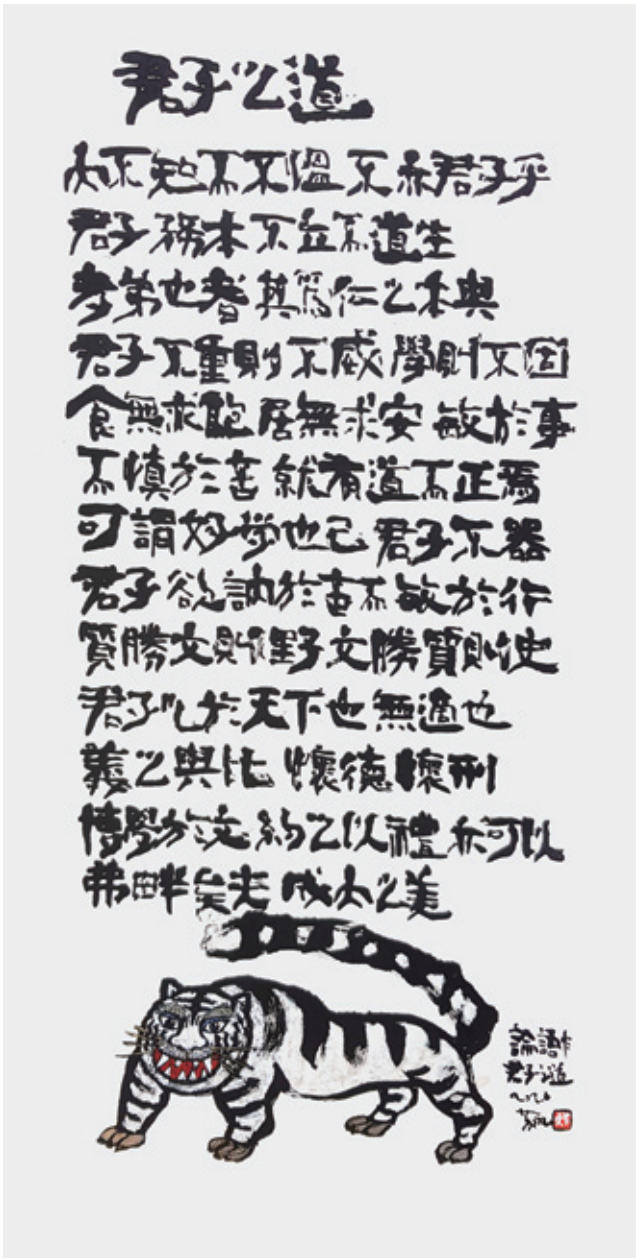


**마음에 새기는 법** 90.9×72.7cm Oil on Canvas 2020

감정들은 생성→소외→소생의 순환을 반복하며 연속적으로 발화한다. 나는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내면 깊숙한 곳에 소외되어있는 감정들을 가지고 파편화된 이미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이야기 속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떠한 행위를 반복하며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그들의 행위는 비정상적, 비상식적으로 비춰진다. 나는 그들의 반복된 행위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0 사부작 4부작 (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 청주), 2019 Fragile취급주의 (구 경성방직 사무동, 서울), 2018 경계의 모양-집합A, 집합B (서신갤러리, 아트스페이스 O, 전주, 서울), 2018 미완성 1PAGE (대안공간 눈, 수원), 2017 CONTE (갤러리 밈, 서울) E-mail_ duri6560@hanmail.net

# 박방영 Bak Bang-Young



君子之道 135x69cm 2020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물들 모든 것들은 내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펼쳐 진 것이다. 옛 글 중에 觀物之外物 (관물지외물)은 내가 본다는 것은 내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본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DNA의 활동성, 방향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는 자기들이 보는 것과 조응하면서 자신을 기억 (Remembering, Re(다시)-Member(조직하다)해 내는 것이다. 다시 조직해가며 자기 찾기를 통해 진화해 가는 것이다. 내 인생의 길에서 인연, 만남, 체험했던 모든 것이 현재의 나이다.

이걸 기반으로 자기 찾기 방법을 터득한다.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다 각자의 삶의 길이다.

홍익대학교 및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뉴욕의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수학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 박사과정수료했다. 세한대학교 조형문화과 서양화교수역임. 주요 개인전은 박방영의 천연의 획 (아리수갤러리, 서울), Bak Bang Young Exhibition (Badisches Kunstforum, 독일), 원초적 생명과 자유 (CUBUS8갤러리, 파주), 박방영의 '모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 등 20여회 개인전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목포, 목포문화예술회관), "백제의 재발견' 현대미술리포트 (전북도립미술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 화랑미술제등 국내외 단체전에 다수참여. 기타활동으로는 2018OECD WORLD FORUM 퍼포먼스, G20정상회의갈라쇼 퍼포먼스, Essen-Kennedy광장 (독일) 퍼포먼스 등 M.P_ 010-8971-3451
E-mail_ pakbangyoung@hanmail.net (Kor) / bakbangyoung@gmail.com (Eng)

# 박성수 Park Sung-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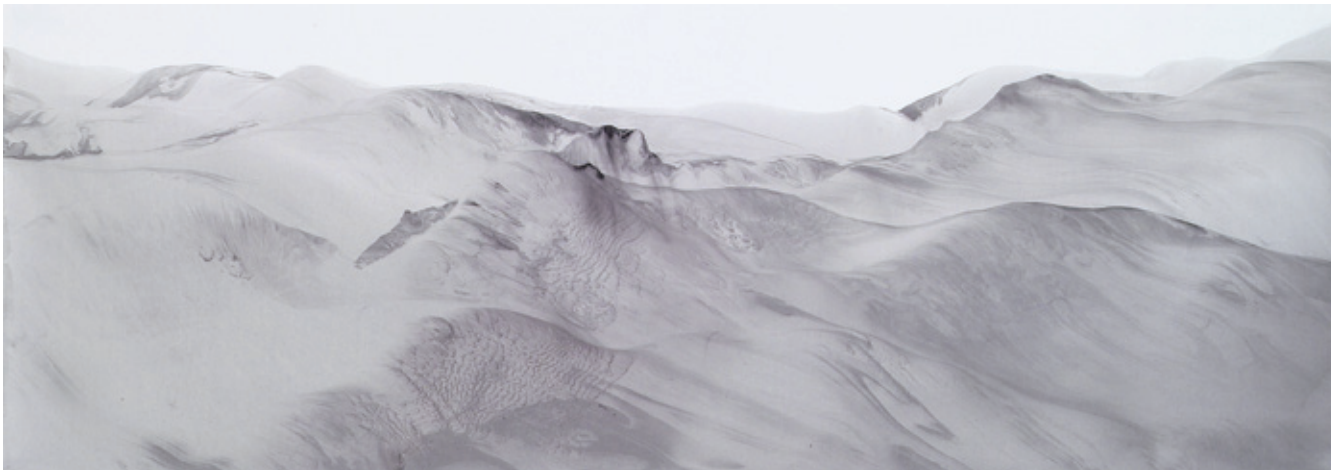


**자화상과 함께** 136x70cm 화선지에 수묵 2020

선사시대의 유인원이 캄캄한 동굴 안에서 거친 손으로 자기 얼굴을 더듬거리며 그려내고 우연히 자신이 존재함을 자각했을 그 때를 상상하며, 기원에 조금더 접근하려는 마음으로 현재의 나와 동시대의 인물을 그리려고 노력중이다.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개인전** 나를 보는 나를 보는 나를, 루벨백미술관 외 13회(미국, 호주, 중국) **단체전** 2017 호남의 현역 작가들, 전북도립미술관 외 70여회 **수상** 2016전북청년작가 선정(전북도립미술관),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선정, 해외교류전시지원사업 선정(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북도), 우진청년작가 선정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LIG아트센터, 우진문화재단, 상하이민생은행 등 **레지던시** nars foundation 뉴욕, 미국(2016), 전북창작스튜디오(2016), 경기창작센터(2014-2015),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1-2012 단기) M.P_ 010-9992-3661 E-mail_ parksungsoo80@gmail.com

# 박종갑 Park Jong-Gab



**행려(行旅)-바람이 불어오는 곳** 40x110cm 중성지, 유연묵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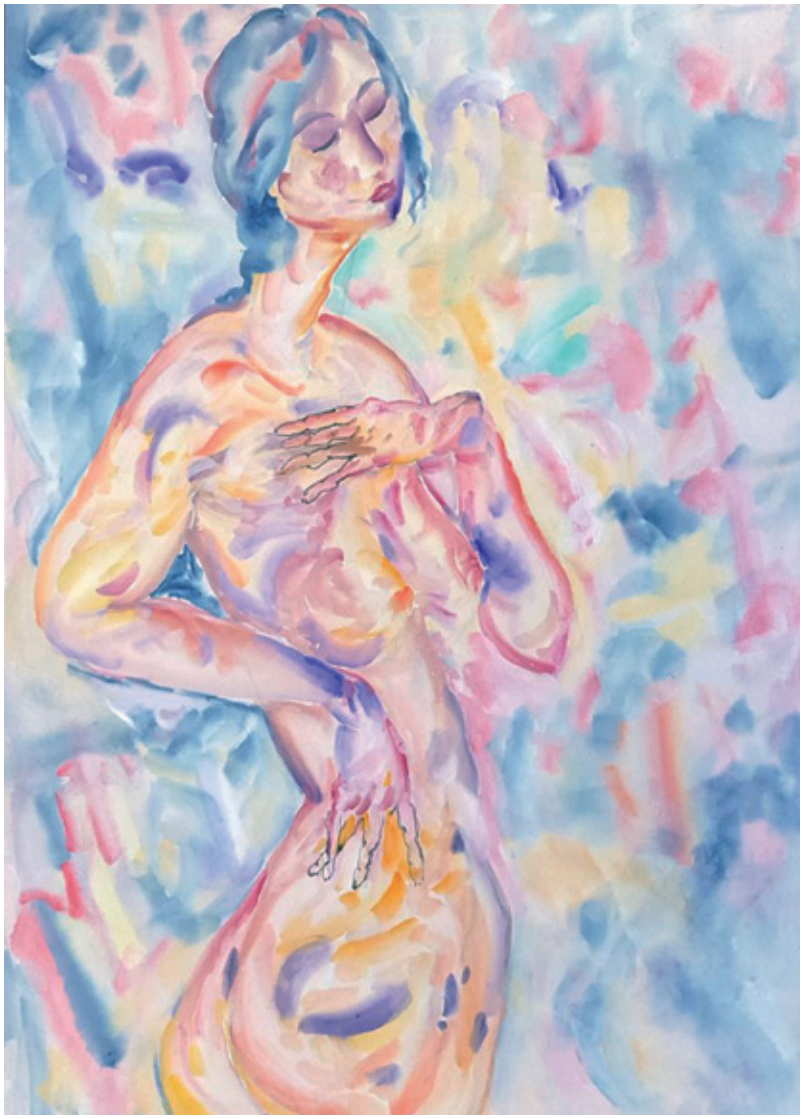
平
中
見
奇

靜
中
見
動

평온한 가운데 기이함을 추구하고
정적인 가운데 동적인 것을 구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 일반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7 제20회 초대개인전 - 남도 • 바람 • 돌 (한벽원 미술관/서울) **단체전** 국내 · 외 400여회, 2019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상해종이비엔날레 /국회남북미술展 등,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한국수묵 해외순회展 /이름Project —뉴욕展 /畵畵 유유산수展 / 대만수묵화대전 등, **수 상** 송은미술상 / 이당미술대상 /중앙미술대전 본상/ MBC미술대전 우수상, 주)YBM, 주)미진사 등 중.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작품수록, **현재**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M.P_ 010-3793-2689 E-mail_ namu42@khu.ac.kr

# 박지예 Park Ji-Ye



**옆집여인** 70x50cm 종이에 수묵진채 2020

본인은 전통과 현대미술에 대한 고민을 작업으로 표현 하고 있다.
종이에 수묵진채을 사용하여 몽환적 여성의 심상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림의 주제인 옆집여인은 평범한 이웃의 중년여성의 이야기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전북대학교 대학원(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졸업(박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졸업(미술대학 한국화 전공), 개인전9회, 2020 누벨백미술관 '옆집여인'개인전, AdieuDystopia6부재난위기 특별전(갤러리아트셀시), 복도아트페어 (가나아뜰리에), 2019 신공간화랑 초대전(옆집여인), 옥천골미술관 박순철.박지예2인전, M.P_010-2658-7822 E-mail_ pjy7822@hanmail.net
artcelsi.com/parkjiye

# 송태정 Song Tae-Jeong



**가을 나들이** 105x75cm 한지에 채색 2020

깊어가는 가을날
오랜만에 만나보는 가을 나들이 속에
붉게 물든 나뭇잎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리고
가을 햇살 속에서 내 마음도 살랑거린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전주교육대학원 졸업, **개인전 및 아트페어전**, 2017-19 초대전3회 (전북지방경찰청, 한전아트센터), 2017 개인전2회 (교동아트센터), 2015 개인전1회 (미국 스캇데일 겔러리, 썬 겔러리) , 2012,10,07 아트페어전3회 (한국 소리문화전당), **단체전** 2004-2020 건지전, 전북회화회 외 80여회, **현재** 건지회원, 한국 미술 협회회원, 전북 회화회원, 버질아메리카 회원, 전북 전주시 전주오송초등학교 재직, M.P_ 010-9860-3883 E-mail_ dduknemi@hanmail.net

# 송화정 Song Hwa- Jeong



**뜨락을 거닐다** 60x69cm 한지에 수묵담채 2019

길을 걷다가 만난 풀꽃에서 이야기를 찾은 후, 스케치를 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대로 풀어놓았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으로 흩어놓았다가 뭉개보았다가...

반복한 붓질이 어떤 풍경을 만들 때까지 그를 보았을 때 내가 가졌던 감정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힘 있게,
때로는 텅 비게...

전북대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회화회 회원 M.P_ 010-4185-1885 Email_ ilikegogh@hanmail.net

# 안순금 An Soon-G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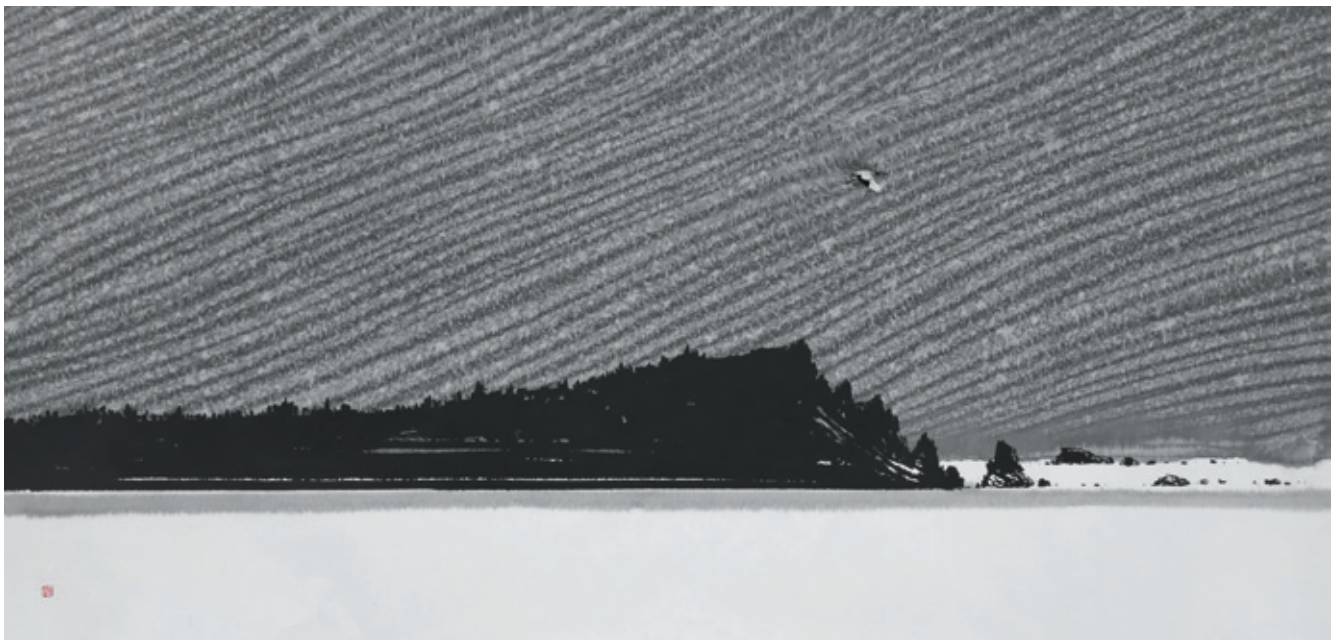
**모악후정2** 61x37cm 먹, 아크릴 2020

밤새 차가운 기온으로 '모악후정의 여름'이
자취를 감췄다. 꽃과 풀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스러져 있다. 작은 돌맹이 뒤쪽으로 겨울 내내
푸릇한 향기를 담고 있을 상사화 잎이 올라오고 있다.
먹과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여 표현해 보았다.
그림속의 흐드러지게 그어져 있는 나뭇가지와
빨간색 열매가 지금 내 눈에 들어온다.

2020년 11월에 모악후정에서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대학원 졸업, 영국 MA in Fine Art at Coventry University, **개인전** 3회,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M.P_ 010-2635-6314 E-mail_ f12-4@hanmail.net

# 오송규 Oh Song-Gyu



**수묵감성-밤하늘을 날다 II** 72×140cm 화선지에 수묵 2020

수묵작업을 해오면서 수묵의 본연의 먹색을 찾고 발현하기 위해 애써왔다.
먹이 가지는 유연한 색감이 좋아서다. 물과 먹이 만들어내는 우연의 조화는 항상 나를 매료시킨다.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먹색의 유동적인 색감을 잡기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순간순간 변하는 먹색의 변화를 잡기위해 끊임없이 작업을 해온 것 같다.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다르듯이 어제의 먹색과 오늘의 먹색은 다르다 항상 다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수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9회 **단체전** 2019 북경비엔날레, 2019 전남국제수묵화 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2018뭄바이 비엔날레(뭄바이/인도), 챈나이 챔버 비엔날레(챈나이/인도) 한국화-옛 뜰에 서다(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2010 부산국제아트페어(부산문화회관), 수묵에 길을묻다(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현재**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충북미술협회 자문위원, 한국기초조형학회 이사, 동서미술문화학회 부회장, M.P_ 010-3751-2185 E-mail_ sunve@hanmail.net

# 윤대라 Yoon De-Ra



**장대비 오는 날 죽은 엄마의 잠옷을 입고 자는 여자** 60x60cm 한지에 수묵채색 2018

2018년 9월 3일
홰를 치며 울어대는 닭들과
끊임없이 울며 똥을 흘리는 염소와
먼 곳을 향해 컹컹 우는 개들 모두 장대비에 가리워져
말이 없는 고양이만
예기치 못한 죽음 탓에 그대로 남은 붉은 꽃무늬 잠옷만
나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7회, **기획전** project이름(뉴욕, 홍콩), 아름다운 한글展(홍콩한국문화원), 2018 International Art Wokshop(Thailand), 2017風流南道Art프로젝트, 정글project, 아시아-쌀展, 탄생,誕生展(양평군립미술관), Hongkong Art Work,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展, 전통과 새 감성展(울산현대미술관), 畵歌-그리기의 즐거움展(한원미술관), 근·현대미술로 보는-해학과 풍자展(알바로시자홀), 아시아현대미술교류展(고양어울림누리미술관), 소재와 기법-전통을 보는 눈展(선바위미술관) 등 200여회, E-mail_ bikinisoda@gmail.com

# 이명자 Lee Myung-Ja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흐른다.** 70x88cm 종이에 수묵담채 2020

물은 흘러간다. 나의 마음도 흘러간다. 나의 삶도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간다. 하루하루를 뒤 돌아보며 나의 삶을 표현하는 오늘, 나는 순리에 맞게 살고 있는지 상념에 잠겨본다. 자연스러운 물과 같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꿈꾸지만 이것이 쉽지 않음을 느끼며 소박한 오늘을, 그리고 소박한 내일을 꿈꾼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공모전 및 단체전** 70여회 출품, **아트페어** 2회, **현재** 전주솔내고등학교 교사, 전북회화회, 전북판화가협회 회원
M.P_ 010-8004-5895

# 이승훈 Lee Seung-Hoon



**지리산 추계** 70x135cm 지본채묵

가을 산행은 피곤하지 않다. 단풍의 다채로운 빛깔과 튼실한 열매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요, 함께 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는 더할 나위없이 좋고 나무에서 올라오는 기운은 몸을 가만두지 않게 한다.

계곡에 흐르는 물은 혼탁하지 않고 죽어 있지 않은 곳이다. 계곡은 시간이 흘러도 흔적이 없는 곳이다. 계곡은 삶의 기원을 알려주고 그 지혜와 혜택을 주는 곳이다. 산의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씩 풀어주는 이야기꾼이다.

요즘 건강을 핑계로 등산을 하거나 계곡을 찾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것은 여유를 찾아보고 물을 가까이 하면서 멀어졌던 가족과 친구들끼리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전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4회, 인물 파노라마전 단체전 등 다수, 해외 및 국내 교류전 다수, **저서** 미술 에세이, <감성, 그 시간 속으로>, <시와그림 감성의 바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전북회화회, 아트회, 전북수묵화회, 현대드로잉회, 대성중학교교장, M.P_ 010-4115-0577 E-mail_ misege@hanmail.net

# 이지희 Lee Ji-Hee



**바람결에chap3** 40x113cm 장지에수묵채색콜라주 2020

기억은 과거의 이미지들이 현재와 비슷한 장면들에서 연출되어지거나 혹은 반대의 상황에 놓여질때 순간의 지각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현재의 나의 환경과 모습이 과거의 어떠한 체험으로부터 비슷한 공간이나 향, 혹은 사물등이 화면의 구상을 창작한다.

비슷한 상황의 모습들은 꼭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작가의 다양한 기억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표현하며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으나 누구나 기억이란 경험을 떠올리는 공간을 재현하게 한다.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 석사 , 북경중앙미술대학 중국화 학사 **개인전** 2019 <煥希:환희> 개인전 (갤러리도스, 서울), 2018 <All the flowing things> 초대개인전 (에이원갤러리, 서울), 2017 <긴 여름> solo exhibition (갤러리너트, 서울) 2016 녹파:綠波 - solo exhibition (KUMA, 서울), 2014 <harmony> 1st solo exhibition (갤러리우림, 서울) 그 외 60여회 단체전 참여 **레지던시** 완주문화재단 완주한달살기 레지던시 참여작가 **작품소장** 인천미술은행 M.P_ 010-2855-4226 E-mail_ jjsok6459@naver.com

# 이진숙 Lee Jin-S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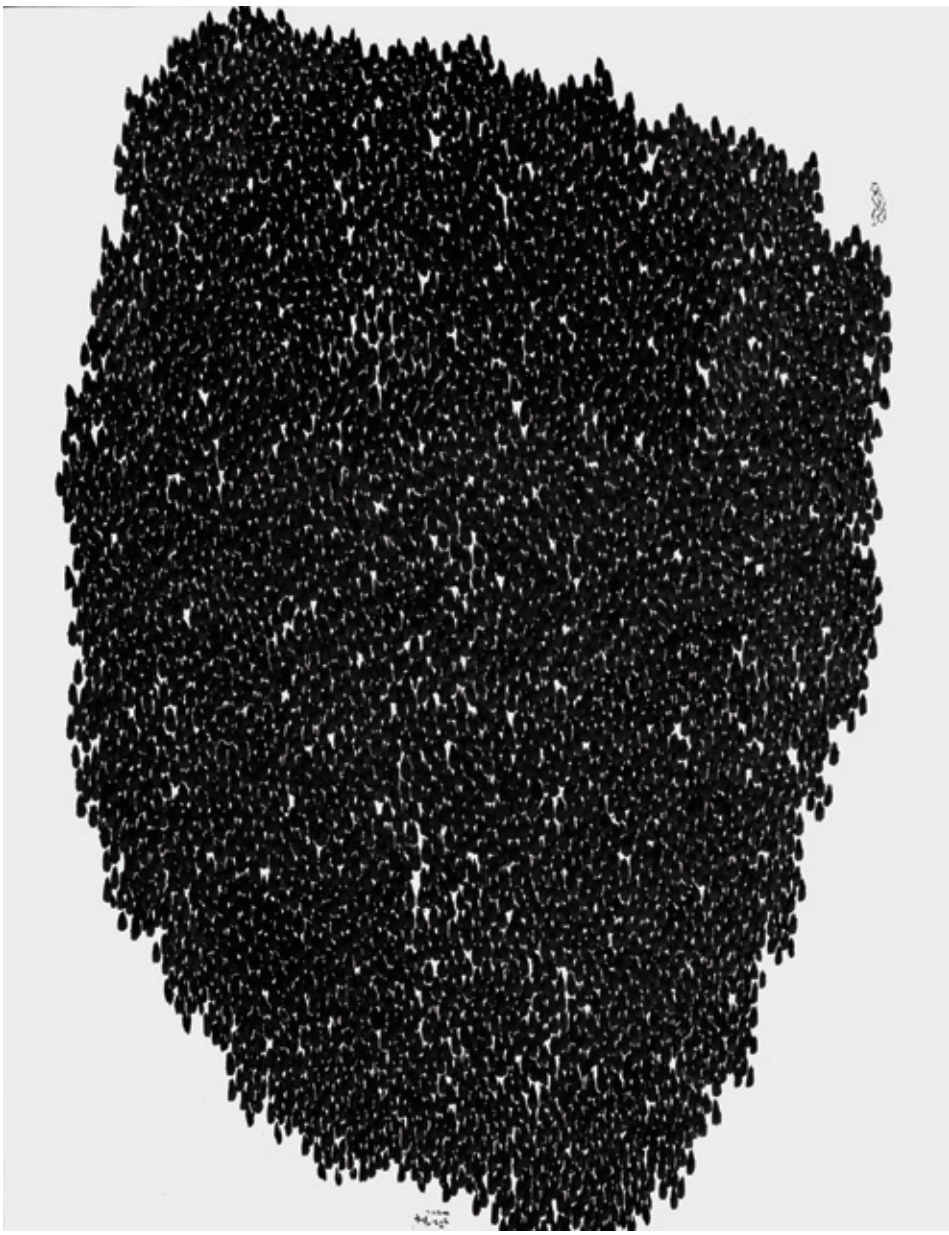


**나무야 나무야** 74x104cm 요철지에 수묵

나무처럼 욕심 없이 살고자 하나 그것은 한갓 끔일 뿐….
헛된 욕심으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런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나, 그리고 나날들….
언제나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지.

원광대학교 졸업 **현재** 한국미협. 원묵회, 봄바람전. 전북회화회 M.P_ 010-4605-9876

# 이철량 Lee Cheol-Ryang



Another nature-city2014 116.8x91cm MUK on canvas 2020

## 또 다른 자연 - 도시

세상은 작은 원소들의 집합체이다. 이 작은 원소들은 더 이상 나뉘어 질 수 없는 최소의 물질이며 또한 어떤 생명체이기도 하다. 이 집합체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실질적 존재이면서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이다. 인간도 그 범주에 있으며 이 집합체 속의 일부이다. 이를 나는 도시라 부른다. 그리고 이들 작은 원소들은 그래서 감각되어 질 수 없는 먹빛으로 존재한다.

B.A College of Fine Art. Honglk University, M.A Graduate School of Honglk University, ONORARY PROFESSOR on JEONBUK University 한국화100년 특별전(울산문화예술회관. 2020), 수묵정신 (전북도립미술관 2019), 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문화예술회관 2018) 아트리에 스토리전(한가람미술전2017), 80년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2015), HERE NAW(포항시립미술관 2015), 한국화의 재발견(성남아트센타 2011), 한국화 1953-2007년(서울시립미술관 2007),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2003),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1986)

# 이호억 Lee Ho-Uk



**바람의 뼈 I** 70x138cm 죽지에 세필 2020

마취되어 정신을 잃고 깨어나면 분절되었던 한쪽 어깨뼈가 조립되고 꿰매어져 있다. 신체가 분리되는 고통과 박락의 감정은 단지, 물리적인 것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시간을 관조하며 일렁이는 것을 마주한다. 눈에 담은 것이 마음에 남았던 탓일까. 저 먼 곳에서 밀려오는 뜨거운 대기가 산보다도 거대하다. 바위가 바람에 깎여지듯, 심장에 남은 잔상이 시간에 깎여 남는다. 세계를 향한 나의 태도는 확고했다. 만약 사유의 적으로부터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결심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중앙대 예술학과 박사 수료 **개인전** 2019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 복합문화공간 EMU/서울, 2018 <붉은 얼굴: Glowing Face> 갤러리 조선/서울, 2015 <觀淫에서 觀音으로>, 안회당/홍성 2014 <Red Carpet>The K갤러리/서울, 2012 <병풍들>그림손갤러리/서울 **단체전** 2020 <2020 (VIRTUAL) OPEN STUDIO>,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인천, 2020 <筆墨之間>, 홍콩한국문화원, 홍콩 2019 <New Acquisitions2018>,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성남, 2019 <한국화, 새로운 형상의 지평을 넓히다>, 자하미술관, 서울 **수상** 2017 제1회 광주화루 대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레지던시** 2020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M.P_ 010-9704-7732 E-mail_ wellshoyi36@hanmail.net

# 임진성 Yim Jin-Seong



**부유하는몽유금강** 69X122cm 한지에 수묵과 이금 2018

임진성 작가의 <부유하는몽유금강>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을 때, 작가가 직접 방문해 그곳에 살았던 북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을 보고 느낀 감정들을 표현해낸 연작이다. 이후로 작가는 금강산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공간으로 다가왔으며, 세필의 금분을 사용한 선 표현으로 규정되지 않고 부유하는듯한 이상향의 산세를 그리게 되었다. 산봉우리와 곳곳의 계곡은 작가에게 현실과 이상 사이를 표현하는 공간이다. 이로써 작가가 표현하는 금강산 존재하지 않은 또 다른 면을 산수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영원할 것 같은 몽유금강은 작가에게 안식이자 사유를 담고 있는 것이다.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에서 학 석 박사학위. 유나이티드문화재단 작가상수상(유나이티드문화재단).,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 교과서작품수록-교학사2012<고등학교미술창작>56p. 두산동아2014<중학교 미술>83p. 전북도립미술관서울관, 캐나다 도산아트갤러리, 인사아트센터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에서 28회개인전 및 250여회 그룹전에 참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수원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외교부장관공관, 중국하얏트리전시, 홍콩스타크루즈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있다. M.P_ 010-3727-5994

# 임 효 Rim Hyo



**제주바다** 64x95cm 수제한지+옻칠 2004-2020

非有而 非無

단순함은 신비한 마력이있다.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순간 느끼는 단순성에 마력을 느낀 뒤부터 그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나는 모든 진리가 하나로 통하는 것처럼 푸른색이 하늘이 되고 바다가 되고 마음이 되어 버린다. 작업은 진행 하면서는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거처서 탄생하나 보여지는 현상은 단순함으로 일관된다 이는 보여지는 세계보다는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표현 하고 싶어서 그런지 도 모르겠다.

**개인전** 25회(서울, 부산, 전주, 미국 L.A , 독일 메켈렌부르크)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전 (국립 현대미술관개관기획 ,과천), 서울 미술제 (서울 시립미술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개관기념(한가람 미술관),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및 단체전**500여, **국제전** 스위스 바젤, 중국 상하이, 터키 이스탄블, 미국 산타폐. 프랑스 파리, 중남미 피아, 스위스 취리히, 싱가포르. 한국 아트페어 등 참가, **수상경력** 7회 동아미술상, 13회 선미술상, M.P_ 010-5282-6504 E-mail_ rh6504@naver.com www.rimhyo.co.kr

# 임희성 Yim Hee-Seong



Family Landscape-**함께도** 68x78cm 아크릴물감, 샌딩 2019

## Family Lands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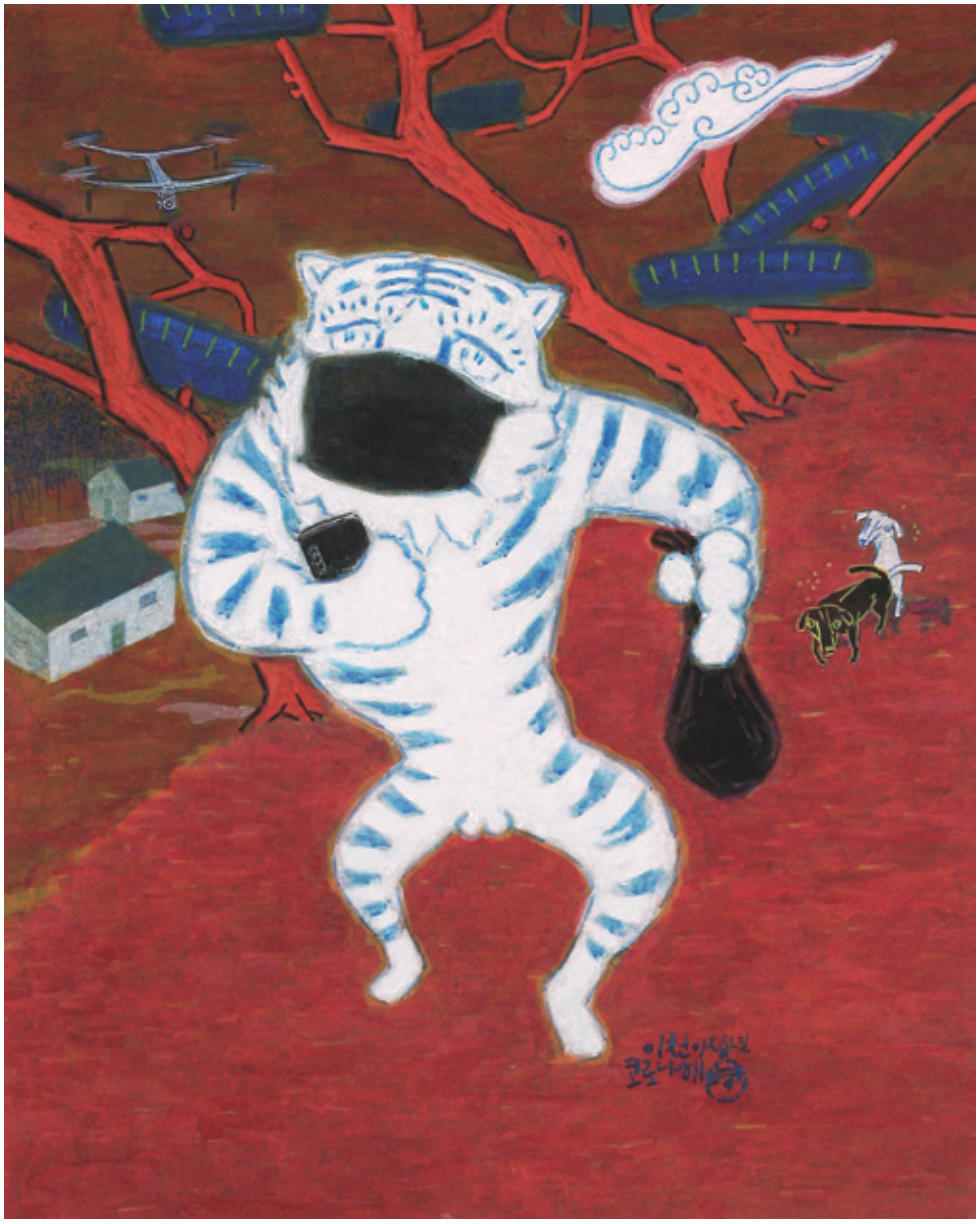
나에게 산수(山水)는 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형식이라 생각했다. 산은 공간의 이야기, 그리고 물은 시간의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해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산수(山水)에 대한 작업과 고민을 많이 하였으며 특히,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의 가족사진이 마치 하나의 산수처럼 다가왔다. 거창하지도, 특이하지도 않은 평범한 나의 가족의 모습은 산수의 시간과 공간적 요소가 사진 한 컷에 그대로 담겨 있음을 느꼈다.

이런 가족의 모습을 물 흐르듯 선을 그으며, 여러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계획이든, 우연이든 겹겹이 그려지는 나의 표현에서 하나의 풍경이 나타난다.

2008 중앙대학교 한국화학과 졸업 / 2012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졸업 **개인전** 2019 이 작가를 주목하라, 교동미술관, 전주/ 2018 Family Landscape, 갤러리 밈, 서울 / 2014 Playing with Landscape,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2011 Transformed The Landscape,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0 깎여진 산수, 샘터 갤러리, 서울 / 2009 Back to the Present, 관훈 갤러리, 서울 **단체전** 40여회, **수상 및 지원** 2019 이 작가를 주목하라 작가선정, 교동미술관/ 2018 신진작가 지원금 선정, 전라북도 문화 관광 재단, 2016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전북도립미술관 / 2013 송파 예술창작소, 입주작가, 송파구청 / 2012 가송예술상, 동화약품 M.P_ 010-4656-7191 E-mail_ iart81@naver.com

# 조병완 Jo Byong-Wan



**아리랑20-어떤 날** 100x80cm 장지에 채색 2020

2020년을 코로나의 해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었고 세상을 떴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구촌 전체가 극심한 전쟁상태에 들어간 오늘, 인간들은 더욱 더 경계하며 누구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없고 떠날 수 없게 되었다. 언제 내려놓고 술잔을 부딪칠 수 있을까, 웃고 서로를 껴안을 수 있을까. 인간 세상에 놀러온 호랑이도 자유롭게 놀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다. 마스크를 쓴 호랑이가 휘청거린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2회(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고양어울림미술관, 전북예술회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등), 호모루덴스, 유희하는 인간전(전북도립미술관 기획), 찾아가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기획) 등 단체전 다수 참여, M.P_ 010-5387-4587 E-mail_ corejo2001@daum.net

# 진희란 JIN Hee-Lan



**백운제석** 47.5x77cm 순지에 수묵담채 2019

한국의 산천을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산행일지를 한 폭에 담는 전통 산수화 기법인 '부감법(俯瞰法)'으로 기억에 의존한 구조의 왜곡을 한다.

이 산수는 친근한 실경의 모습인 동시에, 경험(이야기)과 느낌을 산수로 형상화된 나만의 관념 공간인 '담경산수(談景山水:이야기가 있는 풍경)'가 된다.

**개인전** 2020 두류담경, 겸재정선 미술관, 서울 및 총 6회. **단체전** 2020 제11회 畵歌〈감각기억 Sensory Memory〉, (재)한원미술관, 서울, 2018 청년작가 미술 공모전 한국의 아름다움, 외교부 상황실, 서울, 2018 제2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6관, 광주, 2016 OLD&NEW:法古創新-현대작가, 간송을 기리다, DDP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서울 외 다수. E-mail_ heewu13205@naver.com



# 찾아보는 역사

- 우리 그림은 여러 장인들의 손을 거쳐 꾸며지고 보여져 왔다.
이들을 찾아 우리 그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았다. -

배첩장 장인 - 김대현(고석산방 대표)

A옥션, 솔화랑 - 서정만 (대표)





# 김대현(고석산방 대표)

대담: 박지예(전북회화회 회장), 유예빈(전북회화회 총무)
장소: A옥션  일시_2020년 10월 28일

Q 장황(粧潢-비단이나 두꺼운 종이를 발라서 책이나 화첩, 족자 따위를 꾸미어 만듦.)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자 작품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광원 김대현 대표님은 지난 56년간 변치 않는 장인정신으로 장황의 명맥을 잇고 계시는 데,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A 누나 집에서 자수공장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수를 배우고 결혼준비를 할 정도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어요.

자수공장에서 2-30명 정도 아이들이 자수를 놓고 일하는데 그 공장에서 병풍을 맡기다가 비싸니까 직접 배워서 병풍을 만들었어요.

표구 일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196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67-8년도에는 기업들이 달력을 만들 때 작가들 그림을 사서 사용했는데 그 그림들을 가지고 표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971년에 제대 할 때쯤 누나가 완산서와문화사라는 표구사를 운영해서 기술자로 일을 배우고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73년도쯤 독립하여 전동 옆 고석산방을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Q 표구사를 개업하셨을 때가 70년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당시의 전라북도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지요?

A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였죠. 전쟁 끝나고 모든 생활이 어렵고 마찬가지로 표구사 일로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죠.

한 달에 표구도 몇 개정도 만 할 뿐…. 액자제작은 없고 결혼할 때 해가는 동양자수만 몇 개 들어올 뿐이었죠.

Q 그럼 그때 당시 활동했던 작가분들 기억나세요?

A 석정 낭궁훈, 벽천 나상목, 석천 황욱, 현림 정승섭 선생님등  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70년대 후반에는 그 당시에는 침체된 분위기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대 6대 화가들의 작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정도로 침체되어 있었죠.

그 시기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예술작품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환경이 안되었죠.

Q 장황은 숙련된 기술과 정성이 요구되는 전통 방식의 배접 과정인데요, 장황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이 일 자체가 다 어려워요. 배접(작품 뒤에 종이를 포개어 붙이는 일)할 때 상한 먹을 사용한 작품은 사정없이 번지기도 하고 채색화 같은 경우 진한 채색화를 배접할 때 색이 번지는 경우도 많죠. 또 큰 작품을 할 때 풀에 젖은 종이가 무거워져서 들고 옮기는 것이 힘들 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보통 신경을 쓰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정확하게 먹의 번짐을 파악해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해요. 긴장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접이라고 봐요. 배접 과정에서 번지고 상하면 아무리 다른 치장을 한다고 해서 다 소용이 없는 거죠.

Q 장황 일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장황이라는 것은 작품을 돋보이게도 하지만 작품을 오랫동안 좋은 상태로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중요한 장황 일이 전통적으론 매우 가치 있는 일이지만 변화하는 현시대에는 장황을 배워서 업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로는 가능하지만 장황사라는 직업이 서서히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Q 지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배첩장 신청을 하셨는데, 배첩장이 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A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건데요, 장황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취미활동으로 하실 수 있도록 취미반 수업으로 기술을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남겨주고 싶습니다.





# 서정만(에이옥션 대표)

대담: 박지예(전북회화회 회장), 유예빈(전북회화회 총무)
장소: A옥션 일시_2020년 10월 28일

Q 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화랑 일을 시작하셨고,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A 80년대 초에 아버지께서 표구사를 시작하셨어요. 당시에는 전문 상업화랑 보다는 표구사로 시작해 그림을 일부 사고파는 정도였죠. 그리고 외삼촌도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시면서 전주에 내려오실때마다 자주 표구사에 들러 서울 미술시장의 분위기를 들려주시곤 하셨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제가 본격적으로 80년대 말 정도부터 뛰어들어 '솔화랑'으로 이름을 바꾸고 화랑으로서의 역할을 갖추기 시작하였죠.

Q 그럼 회장님이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신 1980~90년대에 전라북도에서 활동하시던 작가 중 기억나는 분들이 있나요?

A 그때 당시 미술 시장에서는 우리 한국화와 서예가 거래의 중심이 되었어요. 또한 당시의 문화 자체가 고마운분에게 그림을 선물하는게 일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림을 선물하고 거래하는 일이 많았어요.

전라북도 전주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체나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공단 같은 곳아 많지 않아서 관공서 위주로 미술품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당시 서화의 일번지였던 전라북도 서화가들의 명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분들로는 벽천 나상목(1924~1999), 토림 김종현(1913~1999), 강암 송성용(1913~1999), 석전 황욱(1898~1993) 선생님이 계시는데, 특히 이 네 분의 거래가 가장 활발했어요. 1980~90년대 이 시기가 위의 네 선생님을 중심으로 서화가 가장 빛나고 거래도 많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1999년도에 벽천, 토림, 강암 세 분의 선생님들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림을 선물하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점점 미술품의 거래도 줄고, 더 나아가 미술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되었죠.

Q 그럼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동하던 작가분들은 누가 있으셨나요?

A 위에서 언급한 선생님들의 바로 다음 세대는 아니지만 한국화는 벽경 송계일(1940~ ), 현림 정승섭(1941~ ), 목정 방의걸(1938~ ), 이철량(1952~ ), 서예는 산민 이용(1948~ ), 효봉 여태명(1956~ ), 서양화는 유휴열(1949~ ), 선기현(1957~ ) 선생님 등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 미술 시장에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Q 회장님께서 화랑을 운영하실 때 1990~200년 초반 시내 중심지역에서의 솔화랑의 역할을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A 그 당시의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와 소장가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아주 큰 자리에 있었죠. 쉽게 말해 상업화랑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술시장을 움직이는 화랑들은 대부분 상업화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 화랑들이 있었지만, 요즘 전주 지역에서 화랑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정부의 문화관련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1980~90년대에는 작가분들이나 화랑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분들이 작가로서 수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술품 거래가 많았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상업화랑이 거래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술품을 경제적인 여유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접하고 소유하면서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흐르고 미술품 경매회사들이 문을 열면서 순수하게 작품을 좋아하는 매니아층들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됐죠. 그런 변화에 발 맞추어 저희 에이옥션이 2007년도에 서울옥션, 케이옥션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설립 되었었습니다.

**Q** 요즘 언택트시대로 접어들면서 화랑에서의 변화는 어떤가요?

**A** 요즘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영향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온라인 세상이 열리면서 오프라인의 전시 위주였던 미술 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작품은 실물로 감상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온라인을 통한 작품 감상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의 판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과거 음성적으로 거래되던 시대를 넘어, 미술품 또한 일반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본인 나름의 결과물을 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구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리아 아트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현대 미술시장(화랑, 옥션, 아트페어 등)에서 거래된 작품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온라인 상으로 공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미술시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작품을 컬렉션 할 때 일종의 참고 지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트프라이스'라는 책을 통해 1년에 한번 거래내역을 통합한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는 작가별, 시기별로 해당 작가의 작품이 얼마에 거래되었었는지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일종의 공시지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Q** 지역 미술 시장 활성화 방안이나 모색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전주 지역의 많은 화랑들은 대관을 통해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나 전주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화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미술시장이 존재하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상업화랑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미술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예술(미술)의 거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광주 예술의 거리, 대구 봉산문화의 거리 등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고요, 한옥마을 근처로 조성이 되어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미 한옥마을은 관광지로 주목받으면서 부동산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랑이 한옥마을로 입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단순히 미술인들이나 화랑 관계자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이고, 시나 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통문화의 전당 주변으로 예술의 거리 조성에 앞장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거리에 가면 화가도 있고, 화랑이나 미술관이 즐비해 언제든 가면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미술 시장은 자연스레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에이옥션이 미술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앞으로의 의지나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A** 먼저 역할에 대해 말하기 전에 옥션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대부분의 문화예술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 집중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 경매 부분에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라인(모바일) 쪽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작가들의 발전과 육성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이 경매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지역작가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배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 미술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작품 렌탈 사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렌탈하여 일반 시민이 작품을 한점 한점 소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미술작품에 대한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렌탈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앞으로 전주시립미술관이 개관하게 되면, 저희 솔화랑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기증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미술관도 올해 12월에 개관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 저, 그리고 제 아들까지 어느덧 3대째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전공자인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동참을 하여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민들과 작가분들이 미술품에 대한 인식, 상업화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렌탈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 작가들과 상업화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여기,
# 전북 미술 상생전

일정: 2020년 8월 11일 ~ 9월 13일

장소: 전북도립미술관 본관




전북도립미술관이 전북미술협회전 40회 기념 초대 '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을 개최한다. '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은 전북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전북미술협회 40회 전시를 전북도립미술관에 초대함으로써 전북지역 미술의 큰 줄기와 전망을 포용하고 반영하는 자리이다.

전북미술협회 추천을 받아 작가 317명을 초대하는 이번 기획전시는 다섯 개의 소주제로 나눠 전시장을 구성하였다.

제1전시실 '묵향으로 만나는 고결한 품격'에서는, 서예와 문자를 주제로 한 작품 27점으로 구성하고, 제2전시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에서는 꽃을 소재로 한 작품 62점으로 구성했다. 꽃을 통해 생의 절정, 소중한 기억의 순간을 미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이어서 제3전시실 '재현을 넘어 심상으로'에서는 무한한 감정을 자신만의 사유와 결부하여 자유롭게 표출한 추상미술 작품 42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제4전시실 '사람살이, 관조와 쓰임'에서는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과 쓰임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예 작품 59점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제5전시실 '산은 높고, 물은 빛난다'에서는 자연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해석, 서정적 감성을 녹여낸 풍경화 작품 127점으로 구성했다. 자연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해석, 서정적 감성을 녹여낸 풍경화로 구성했다. 전북도립미술관 관계자는 "전북미술의 현재 상황을 짚어 볼 수 있으며, 미술관과 지역 미술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생'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였다"라고 전했다.

출처 : 배상현 기자 (문화뉴스)





**내마음 가는대로** 120x120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20

# 송지호 개인전

## -일상속의 행복-

일정: 2020년 10월 19일 - 10월 31일

장소: 갤러리 숨 기획 '공감-공유'(2020)

21세기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대중화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복잡하고 어렵지 않게 타인에게 표현한다. 전통적인 예술개념에서 벗어나 캐릭터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팝 아트의 영향으로 나 또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토끼라는 캐릭터를 통해 표현했다.

익살스럽고 동화적인 상상력은 아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며 함께 교감하고자 하는 아빠의 마음이다. 서로 그림으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내면의 감정들을 그림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었다.

내 나이 마흔여섯... 올해 열 살이 된 딸아이와 같은 토끼띠이다.

나는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처음이라 서툴지만나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만들어간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평범하지만 소중하다.

나는 어려서 부터 꽃이나 나무를 무척 좋아 했다. 나무위에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며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었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산이나 들에 피어있는 꽃들은 하나하나 소중했으며 이유 없이 좋은 친구 같은 존재였다.

가끔 딸아이는 핸드폰으로 하늘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여준다. 아빠 하늘 좀 보세요. 색이 너무 예뻐요. 저 구름은 어떤 동물 같아요? 하며 좋아하는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 웃음이 난다.

나는 행복이란 일상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행복의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행복을 꿈꾸는 것만큼은 같을 것이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서 감사함과 소중함을 잊지 않는다면 누구나 원하는 행복에 한걸음 다가서지 않을까? 요즘처럼 사람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은 더욱 절실해 졌으며, 일상속의 행복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고 싶다.

원광대학교 한국화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3회(전주,부천, 화순, 삼례, 서울, 익산) **아트페어** 2020 서울조형아트쇼(코엑스), 2018.2016 KIAF(코엑스), 2018.2017.2016 군산아트페어 (군산새만금켄벤션센터), 2014 부산아트쇼(벡스코) 2014 일본호텔아트페어, 2014.2013홍콩호텔아트페어, 2013 서울아트쇼(코엑스)**작품소장처** 남아공대사관, 전북도립미술관,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교육청, 누벨백미술관, 강남세브란스병원, **드라마** MBC 왔다 장보리 작품협찬, **현재** 한국미술협회, 전업미술가협회, 원묵회, 전주이야기, 한국화대전추천작가전라북도미술대전초대작가,전국춘향미술대전추천작가, 우진문화재단청년작가, E-mail_ jihoart@hanmail.net. http//blog.naver.com/jihoart





**미끄러움과 경계의 이미지** 130x130cm 캔버스에 오일 2020



**서사뜰채** 233.6x273cm 캔버스에 오일 2020

# 박두리

## -프로젝트; 긍정적 뜨내기-

**일정: 2020년 11월 19일 - 12월 8일**

**장소: SHINSEGAE GALLERY**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전시 지원을 통해 지역미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199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공모전입니다. 미술제에서 수상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초대 개인전을 개최하여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광주를 비롯한 국내 미술계에 알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전시는 2018년 제19회 광주신세계미술제에서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박두리 작가의 초대전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치는 풍경, 그 안에서 다시 소환되는‘ 소외된 감정’, 그 감정들과 얽혀있는 이야기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백일몽의 이미지를 평면 위에 표현합니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백일몽은 캔버스 위에 유화로, 또는 그 유화의 이미지로 편집된 영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차마 외부로 표출하지 못한 감정은 각자 내면 깊숙한 곳에 축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 관계가 얽히고 설킨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감정 숨기기’에 익숙해지면서 어느새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일부 억눌려있던 감정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쑥 튀어 나오기도 합니다. 작가는 그러한 ‘소외된 감정’이 외부로 노출되는 순간이나 풍경, 대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감정의 흔적’을 기록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다소 기이한 행위들은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 되지만 더 이상 그 목적을 상실한 듯 보입니다. 어쩌면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태도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듯한 일련의 장면들은 그 행위를 통해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작가는 부유하는 숨겨진 감정들을 찾아 스스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림과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시리즈는 각기 다른 이야기와 숨겨진 감정들을 담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색다른 관람객들과 만나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미술제 심사평에서 박두리는“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최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유화 페인팅 작업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고, 특유의 재기발랄하고 자유로운 조형감각이 두드러졌다.”는 평을 받으며 신진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캔버스와 모니터에 담긴‘ 긍정적 뜨내기’ 특유의 백일몽을 통해 그 동안 숨길 수 밖에 없었던 내면 깊은 곳 감정의 흔적을 찾고,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광주신세계갤러리



# 박지예 개인전

## ··옆집여인··

일정: 2020년 9월 19일 - 9월 25일

장소: 누벨백 미술관

인간의 삶은 고통이라 한다. 그래도 힘든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한다(苦中樂). 코로나19로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과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나의 시간보다는 자녀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잠시 아이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다른 때보다 이번 개인전을 준비하며 힘을 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시 코로나 확산으로 전시장에 관객을 초대하는 일이 두려워졌다. 그러나 비대면이나 sns등을 이용하여 전시를 알려보려고 한다.

옆집여인은 상상속의 인물이다. 그녀들은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또래의 중년여성들이며 또한 나 자신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아내이며 또한 엄마이고 그리고 평범한 직장동료들이기도 하다.

나는 이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중년여성들의 일상을 말하고자 한다.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위치이다. 그러나 본인의 삶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담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녀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나는 그녀들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감정과 또한 삶이 미묘하게 드러나도록 인물에 집중하였다. 이들을 통해 어느덧 인생의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삶의 욕망과 나아가 나 개인의 자유를 표출하고 싶었다.

두 아이의 엄마이며 직장을 갖고 되풀이되는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부터 일상에 지친 중년 뭇 여성들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한다.

인물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형상화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여성의 내적인 갈망과 욕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상의 허전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감정표출은 모필과 종이가 만나 우연적인 붓의 성질을 이용하여 스케치하듯 몽환적인형상으로 조형적 변화를 의식하며 인물에 표정에 집중하였다.

나는 이번 작업을 통해 나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뭇 여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에서 고귀함을 발견하려 노력하였으며 이는 곧 본인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2020년 8월 - 작업노트



**옆집여인** 65.5x45cm 종이에 먹과 채색 2020



# 특별기고

전라북도, 예술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격 지급 - 박용주(쿠키뉴스 기자)
소외된 감정의 시각적 재현에 대해 - 박두리(회원)
완산가에서 춤을 추다 - 송태정(전주오송초 교사)
고흐 & 최북의 자화상 - 이종근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국장)
기억을 통한 이상화된 수묵 산수 연구 - 이지희(회원)



# 전라북도, 예술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전격 지급

박용주(쿠키뉴스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에 내몰린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지난 7월 예술인재난극복 지원사업으로 198개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4억원, 전북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114점에 2억원을, 9월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43개 예술단체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이어, 10월부터는 예술인 일자리사업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인 대상 코로나19 대책사업으로 모두 8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93억원을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에 직간접 지원을 이어왔다.문화예술 지원사업 방식이 아닌 예술인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단,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하지 않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예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11월 기준 유효한 예술인은 모두 1860여명으로 추산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예술회관의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도는 지원 신청 접수자를 대상으로 분류와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예술 분야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크다”며 “재난지원금이 도내 예술인들이 예술의욕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쿠키뉴스



# 소외된 감정의 시각적 재현에 대해

박두리(회원)

이성과 감정에 관한 문제는 서양 근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서양 근대 철학자들은 감정을 이성에 의해 다스려져야할 대상으로 보고 이성과 감정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비유하곤 하였다. 하지만 감정을 초월한 이성적 삶에 중심을 두었던 이성중심주의 사상은 오히려 감정을 소외시킴으로서 이성과 감정의 간극을 더욱 멀어지게 하였다. 이성중심주의 사상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을 추구하는 현대철학은 소외된 감정에 대하여 새로운 사유의 이미지를 그려나가고 있다.

프로이트는 마음의 실체를 이드(id)와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욕망의 근원인 이드가 본능적으로 욕망을 느끼고 해소하려 하지만 현실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이성적 자아가 이것을 계속 억제함으로써 이드는 무의식이라는 보호구역으로 도망쳐 '억압된 욕망의 위장된 성취'를 이루게 된다. 나는 이러한 무의식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백일몽을 통하여 설명하고 그것을 재구성 한 새로운 풍경을 구상하였다. 라캉은 욕망론에서 주체의 욕망은 언어에 의해 상징적으로 체계화된 구조 질서 속에서 욕망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욕망하는 타자의 욕망이 된다고 보았다. 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본인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자성(自性)을 확립한 주체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타자를 의식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억압된 감정은 자아상실의 허무감을 유발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자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되었다.

삶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자기감응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나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습득된 사유와 습관, 행동양식들에 의하여 현실적 삶의 배후에 잠재적으로 무의식화 된 소외된 감정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감정을 표출하고자하는 욕망이 상징체계의 사회구조질서로 구성된 세계 속에서 좌절되고 무의식속에 소외된 감정들은 침체되어 남아있게 되었다. 무의식 속의 소외된 감정을 작품을 통해 의식화하여 소외된 감정을 소생시키고자 한다. 무의식화 된 감정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감정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나는 감정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익숙한 풍경 속의 낯설음을 재현한다. 삶 속의 익숙한 풍경은 어느 순간 생소하게 다가와 새로운 인상을 준다. 그 과정에서 무의식 속 침전되어 있던 감정들이 소생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그 풍경을 낯선 풍경으로 재현함으로써 무의식적 감정들을 의식화 시킨다. 이는 단순히 형상을 복사한 재현이 아닌 나의 경험과 시간의 수식을 거쳐 파편화되고 재구성된 심리적 풍경이다. 나는 표현의 한계가 있는 언어 대신 체화된 몸을 통해 그림을 그림으로써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삶 속에서 소외되었던 감정을 불러일으켜 무감각해진 삶과 작품에 대해 반추하는 계기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관계의 오류** 193.9x224.2cm Color on korean paper 2014



# 완산가에서 춤을 추다

송태정(전주오송초 교사)

겸재(정선)와 북산(김수철)이 있는 완산가를 찾았다. 완산가의 주인장 (박종갑, 윤대라 한국화가)들이 전북회화회의 회원들을 초대 했다. 새로 들어온 신입회원들과 그림으로만 보아왔던 회원들이 많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선 곳은 조그마한 절과 작업실이 같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두 분의 화가와 함께 두 마리의 개(겸재와 북산)와 이국적인 염소 나타샤와 튼실한 고양이 양생원, 닭들이 격하게 우리를 반겼다. 원래 이곳은 절터였는데 7년 전부터 절터 곳곳을 작품 활동 공간으로 꾸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두 부부는 개인의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직접 예술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게 운영하기도 한단다. 또한 '완주 한 달 살기,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예술인들이 완산가에 머물면서 완산가의 예술가와 농촌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소통하면서 작품으로 승화시켜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예술인들이 머무는 곳에 가보았더니 방바닥이 온돌로 되어있었는데 장작을 직접 패서 불을 뗀다고 했다. 매일 불을 직접 지피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불을 지피면서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참 좋은 공간으로 보였다. 완산가에서 만 누릴 수 있는 여유라고 할까?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뜨끈뜨끈한 온돌방에서 한숨 자고 싶어졌다.

윤대라 작가의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대웅전으로 들어갔다. 윤대라 작가가 운영하고 있는 '완산가 유튜브'에서 볼 때는 대웅전이 꽤 크다고 느껴졌는데 실제로 와보니 아담했다. 전에 대웅전이었다고 생각해서 인지 왠지 여느 작업실과는 사뭇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윤대라 작가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작품들을 보며 윤대라 작가님의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고, 군데군데 그려진 고양이, 개, 닭, 완산가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먹과 색의 조화에 감탄이 절로 났다. 그리고 작은 도자기 화병에 꽂아놓은 앙증맞은 대나무와 단풍나무는 회화회 회원들의 감성과 딱 맞아 금세 친근해졌다.



저녁식사는 그림 그리는 스님과 함께 지인이 가져온 홍어회가 있었는데 와인과는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묘하게 어울려 맛있었다. 와인과 함께 담소가 즐겁게 오고가는데 윤작가님이 커다란 가방에서 뭔가 하나 둘 커냈다. 그리고는 색동으로 된 모자를 우리들에게 하나씩 씌워주었다. 전에 어린이들과 함께 문화예술체험 행사 때 사용했던 소품이었는데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하나씩 입혀주고 씌워주었다. 그저 재밌었다. 색동옷이 아동스럽긴 했지만 오방색으로 화려해서 우리를 들뜨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었고 하나 둘 입을 때 마다 개성이 드러나는 옷으로 변했다. 모두 입고 나니 왠지 박수무당 같고 접신할 것 같은 들뜬 기분이 들었다. 함께 하신 두 교수님은 색동옷을 입고 교주같이 깃발을 들고 계속 흔들어서 우리도 뭔가를 들고 흔들어야만 될 것 같았다. 다들 자기만의 무언가를 들었다. 대나무, 단풍나무, 가야금, 바나나, 쥬스 통...등을 들었다. 들고나니 춤도 추고 싶어졌다. 윤작가님이 '범이 내려온다'라는 퓨전 국악과 함께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영상을 틀어주었다. 신나는 춤이었다. 모두들 춤을 따라했다. 작업실에서 신나게 춤을 추다 보니 밖으로 나가서 추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았다. 음악과 함께 하나씩 자신만의 춤사위로 춤을 추면서 마당으로 나갔다. '범이 내려온다'는 음악은 계속 들려오고 우리는 춤 추는게 넘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 서로의 모습에 웃었고 작두가 있으면 작두라도 탈 수 있을 것 같이 신났다. 먼 산만 바라보던 겸재와 북산도 우리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완산가에서의 경험은 신선한 문화충격이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접해보는 다양한 문화예술들이었지만 이 완산가에서는 일상적인 예술행위였던 것 같았다. 대웅전작업실에서 스님께서 겸제 털로 만든 붓으로 쓱싹쓱싹 그려내는 달마도, 다녀간 이들이 먹으로 써 내려간 글들, 지역의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영상 속에 들어있는 퓨전국악과 댄스, 아이들이 문화예술체험 행사 때 사용했던 오방색의 색동옷, 개성이 드러나는 춤사위, 우리가 놀고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유튜버, 영상 제작을 위한 연출 등등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예술 행위였다. 예술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멋진 하룻밤이었다.



**빈센트 반 고흐 - 귀에 붕대를 감은 자화상** 90x60cm
캔버스에 유채 1889 영국 런던 코톨드 인스튜트 갤러리

# 고흐 & 최북의 자화상

이종근 (새전북신문 문화교육부국장)

네덜란드 출신의 빈센트 반 고흐(1853-1890)는 독특한 화풍과 표현력으로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화가다. 예술가로서 가난과 좌절로 점철된 쓰라린 인생 여정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비운의 화가 반 고흐는 창작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독특한 화법과 내면 중심의 표현력으로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가장 위대한 화가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영혼 구도적인 강렬한 작품으로 사후 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대중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이다.

10년의 화가 생활에 반 고흐가 남긴 유화작품은 약 880 여 점에 이른다. 대표작으로는 '자화상', '아이리스', '자화상' , '감자 먹는 사람들' , '해바라기', '오베르 교회'가 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이름과 예술 세계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사후 그의 영향력은 인상주의, 야수파와 추상주의, 표현주의에 걸쳐 거대한 것이었으며, 20세기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귀감이 되어 오고 있다.

"형의 노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오... 난 미래 사람들이 형을 이해할 거라 확신하오. 문제는 그것이 언제냐 하는 것이오"

동생 테오의 예언처럼, 21세기에도 그의 붓 터치 속에 살아 숨쉬는 듯한 예술정신이 현대인들의 감수성을 일깨우며, 그가 내뿜었던 광기의 불꽃은 꺼지지 않은 채 진정한 영웅으로서 반 고흐의 신화는 계속되고 있다.

고흐는 알아도 그보다 100년 전 이 땅에서 살단 간 조선의 애꾸눈 화가 호생관(毫生館) 최북(崔北, 1712-1786, 무주출신 또는 경주출신)을 모른다면 문제다. 반 고흐는 그 유명한 '자화상'을 그리고 두 달 뒤 권총자살로 37세의 생을 마감했고, 최북은 조선 숙종 때 태어나서 정조대까지 살다가 어느 겨울 밤 홑적삼 입은 몸으로 눈구덩이에서 얼어 죽었다.

반 고흐는 생존시에 단 한 폭의 그림을 달랑 400프랑에 팔았고, 최북은 아침 저녁 끼니를 때우기 위해 오두막집에서 하루 종일 산수화만을 그려야 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엔 이들이 거의 광인의 기질을 호진 것이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반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잘라버린 것과 최북이 자신의 눈을 찔러버린 것에는 그 동기가 완연하게 다르다.

고흐는 그냥 미친 짓으로 귀를 잘라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최북이 자신의 눈을 찔러버린 동기는 분명하게 전해져 온다. 권력을 가진 세도가의 압력을 단연코 거부하고 반발한 점에선 당당한 기개마저 엿보인다.

사실 우리나라 화가 중 최고의 기인 최북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김명국, 장승업과 함께 조선 3대 기인 화가로 꼽히며, '한국의 반 고흐'라 불리우는 최북은 조선 후기 자기만의 예술에 대한 끼와 꾼의 기질을 발휘, 회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겸재 정선(1676-1759), 현재 심사정(1707-1769), 표암 강세황(1713-1791), 능호관 이인상(1710-1760) 등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최북은 그의 가계와 문집이 전하는 바가 없으나 예술적 면모, 괴벽스러운 성격, 다양한 교우관계 등이 최북을 아낀 이들의 문집이나 일기 속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출신 성분이 낮았던 최북은 직업 화가로 활동했다. 그는 그림 한 점을 그려서 팔아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했고, 돈이 생기면 술과 기행으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말년의 생활은 곤궁했고 비참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사대부 중심에서 일반 서민 사회로 변화하는 문예부흥기라고 말하지만 천민 출신인 화가가 서야 할 자리는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다.

'호생관'이란 호는 '붓(毫)으로 먹고 사는(生) 사람'이라는 뜻으로, '칠칠(七七)'이란 자는 이름의 '북(北)'자를 둘로 나누어 스스로 각각 지은 것이란다. 메추라기를 잘 그려 '최메추라기'라고도 했으며, 산수화에 뛰어나 '최산수(崔山水)'로도 불렸다.



**작자미상 - 최북초상** 65.5x41.5cm

최북의 그림은 초기 남종화풍의 화풍에서 후기 조선의 고유색 진경산수화로 바뀐다. 천하에 놀기 좋아하고 구속받지 않으려는 자유분방한 기질 때문에 국내의 금강산, 가야산, 단양 등은 물론 일본, 중국까지도 다니면서, 중국 산수의 형세를 그린 그림만을 숭상하는 당시의 경향을 비판하고 조선의 산천을 찾아 직접 화폭에 담는 진경산수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삶의 각박한 현실에 대한 저항적 기질을 기행과 취벽 등의 일화로 남겼다. 그의 산수화는 물론 화훼, 영모, 괴석 등 모든 면에서 대담하고 파격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였으며, 취미가 다양한 까닭에 시, 서, 화 삼절(三絶)의 화가였다. 아니, 최초의 직업 화가로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북의 작고 연도는 정확치 않다. 200여년 전 사회의 변혁기에 그림이란 학문을 통해 진경산수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자 했고, 가난하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간 최북의 그림은 '표훈사도(表訓寺圖)', '공산무인도(公山無人圖)'등이 있고 약 100 여 점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어느 날, 권력자가 찾아 와서 산수화 하나를 그려 달라고 했다. 그리기 싫은 속내와는 달리, 권력에 못 이겨 억지로 작품을 만들었다. 물은 그리지 않고 산만 계속해서 그렸다. "아니 내가 산수화를 그려 달랬는데, 산만 그리고 왜 물은 그리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림 바깥은 다 물인지 아쇼"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냥 그에게 줬다고 한다. 또 언젠가도 권력자 한 사람이 찾아 와서 그림을 그려 달라고 졸라 댔다. 실랑이를 하다가 그냥 욱하고 받치니까 자기 문갑 위 필통에서 송곳을 꺼내 자기 눈을 딱 찌르고서는 "차라리 내 자신을 자해할 지언정 남에게 구속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애꾸가 되어 돋보기 안경 한 알만 샀다고 한다.

최북이 죽고 난 후 신광하(申光河, 1719-1796)는 '최북가'를 지었다.

'(전략) 술을 찾아 미친 듯 노래하고 붓을 휘두를 적엔/큰 집 대낮에 산수풍경이 생겼다네/ 열흘 굶어 그림 한 폭 팔아서/취하여 돌아오다 성모퉁이에서 쓰러졌네//북망산 흙 속에 묻힌 만골에게 묻나니/어찌하여 최북이는 삼장설에 묻혔단 말인가/오호라! 최북이는 몸은 비록 얼어 죽었어도/그림 그리기 싫어 애꾸눈이 된 최북(崔北)!'

그는 스스로 눈을 찔러 한 눈이 멀어서 항상 반안경을 쓰고 여전히 그림을 그렸으며, 술을 즐겼고 그림을 팔아가며 전국을 주유했다. 주유 중 금강산 구룡연(九龍淵)에 투신했으나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최북이 평양, 또는 동래 등지로 그림을 팔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구하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한다. 말술을 즐긴 그는 말년에 남의 집 살이를 하다가 눈 오는 날, 만취해 성곽 구석에 쓰러져 얼어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최북의 '자화상(종이에 수묵담채. 56*38.5, 18세기, 개인 소장)'은 그의 별칭(혹은 호, 자)만큼이나 파란만장하다.

붓 하나로 운명을 건 비운의 아웃 사이더 화가. 그는 남아있는 한쪽 눈으로 속된 세계를 경멸하고 조롱했다. 그림을 잘 그려 명성을 얻은 최북은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굴욕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택한 지존의 화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속 깊은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다.

# 기억을 통한 이상화된 수묵 산수 연구

## -연구자 작품 연구 위주로-

이지희(회원)

우리는 일상에서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자극하며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바탕으로 눈앞에 펼쳐진 현재와 과거 어느 순간의 일상이 떠오르는 감성 활동으로 일어난다. 무의식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시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와 활동 중간의 관계하는 시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한다.

현재의 일상과 과거 잠재적 기억이 겹쳐지는 관계의 심리적 이상화를 표상한 심상이미지가 작품에 표현하고 있다. 과거 어느 순간이 떠오르는 기억으로부터 연구자의 작업이 시작한다. 그 기억은 의식하여 계획 하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과거의 경험한 비슷한 풍경이 보이거나 비슷한 향이 나는 순간을 드로잉 한다. 대체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기억들이 아니며 정확하지 않은 날짜와 정확하지 않은 날씨의 모습들이 있고 주위 모든 사물들을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한다. 파노라마 형식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아득히 잊혀 진 과거의 모든 시간은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하며 이것을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나는 순간이다. 한 순간의 찰나는 순차적으로 나열되지 않으며 시간에 관계없이 쌓이는 것을 표상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과정에 심상이미지를 표상하고 그 이미지는 연구자의 감성에 의해 수묵을 토대로 다양한 작업 형태로 나타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심코 잊혀져버린 과거나 혹은 지나쳐버린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와 같은 시간에 마주하게 된다. 내재되어 있는 잠재된 무의식 기억을 '순수 기억(mémoire pure)'이라고 앙리 베르그손(1859-1941)의 『물질과 기억』에서 말하고 있다. [1)]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잠재되어 있는 기억들이 현재의 어떤 순간에 의해서 떠오르는 기억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로부터 경험한 기억의 이미지들을 '표상'하는 것이다. 표상[2)]은 어떠한 대상을 마음속으로 재현한다는 의미로 심상(心象), 즉 이미지를 말한다. 연구자의 과거 경험한 기억들이 표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들이 더 깊숙하게 내재되어 축적되어 있다.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쌓이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 곧 순수 기억들이고 이것이 무의식 안에서 잠재되어 있다가 현재의 충격이나 외부로 인해 반응하여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다.

순차적으로 시작된 시간들이 아닌 연구자의 주관적인 시간들을 말하며 의식의 흐름을 통해 과거의 잊고 있던 기억들이 의도적이지 않고 순수하게 현재와 마주하는 시간이다. 순수 기억은 과거의 어느 순간의 이미지가 우연히 현재의 일상에서 겹쳐지며 일어나는 현상이다. 차례로 일어나는 시간들이 아니며 그 기억들은 아주

---

1)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p.236

2) 표상(representation)은 대상을 마음속에서 재현한다(represent)는 뜻으로 마음 속의 상, 즉 이미지를 의미한다. 어떤 내외적 원인으로 마음에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초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인식의 기초단위하고 할 수 있다. -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p.45-50, 요약

오래전에 경험했던 어느 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바로 어제의 일이 되기도 한다. 현재의 일상과 과거 순수 기억들이 시공간을 통해 이미지들이 겹쳐지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을 작품을 통해 표현한다.

과거 무의식속에서 가져온 기억의 순간들은 순차적으로 객관화된 시간이 아니며 주체가 순간적으로 기억해낸 시간으로서 현재와 재구성되어 진행된다. 연구자에게는 어린 시절의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모두 과거가 되며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담고 있는 현재가 있다. 현재의 일상 속 시간 안에서 과거의 시간과 장소, 혹은 대상을 찾아감으로써 작업을 시작한다. 현재의 공간에서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기억들과 의식적으로 애써 떠올리려는 기억들을 탐구하고 혹은 이러한 기억들을 바탕으로 더 오래된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 헤매기도 한다. 이렇듯 연구자에게 기억은 보이지 않지만 과거의 보았던, 겪었던 세계를 다시금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통로가 된다.

잠재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연구자의 감정을 이미지화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데 먼저 프랑스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손의 '순수 기억'의 개념을 바탕으로 살펴볼 것이다. '순수 기억'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으며 '유용한 것이기를 그만 둔 것'이라고 말한다.[3] 연구자가 경험한 예로 안개가 자욱한 풍경에 홀로 서있는 나무를 보고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연구자의 기억 안에서 보았던 익숙한 장면인 것은 명확했고 그것을 보며 과거 익숙한 나무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올라온다. 이러한 과정은 내재에 사라지지 않은 과거의 이미지와 감정들이 의식에 관계없이 일어난 무의식의 표상들이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그 장소와 비슷한 이미지가 생각났다면 이것은 무의식의 기억과는 관계없이 지각활동으로 이루어진 방식으로 찾아낸 것이다. 연구자는 과거에 경험한 익숙한 대상이나 풍경과 마주할 때 그때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현재 일상 속에서 의식에 따라 과거의 어느 순간을 기억해낸 지각활동은 순수 기억이라고 할 수 없다. 연구자는 현재의 어느 순간을 보고 꼭 떠올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무의식 안에서 순간적으로 찰나의 여러 기억들이 엉켜지며 생성되는 것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존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표현하거나 이미 사라진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은 철학적으로 논할 때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베르그손은 말하고 있다. 과거가 존재하기에 현재의 '나'라는 주체가 있는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흐르고 있는 시간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과거의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순수 기억 속에 '나'를 탐구하게 된다. 과거의 체험과 경험은 잠재된 내재 속에 계획적이지 않게 저장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보존되어 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순수 기억을 연속적인 시간 안에서 '이미지'로 표상된다.

습관으로부터 오는 기억은 이미 필요한 이미지들만 자동 저장시키고, 반면에 순간적으로부터 오는 기억은 현재의 충돌이나 시선에 의해서 작용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마음속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표상이다. 순수 기억들은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현재 일상에서 부딪히는 대상, 혹은 시간에 의해 반응한다. 이것을 주체자의 의식으로 끌어올려 이미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기억은 과거의 이미지들이 현재와 비슷한 장면들이 연출되어지거나 혹은 반대의 상황에 놓여 질 때 순간의 지각활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현재의 일상 안에서 연구자의 환경과 모습이 과거의 경험한 다양한 체험으로부터 오는 비슷한 공간이나 냄새, 혹은 사물 등이 화면의 이미지를 구상한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공간과 시간은 현재와 똑같이 닮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그리움으로 시작하여 이후 자아의

3)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 옮김, 『물질과 기억』, 아카넷, p.256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은 현재의 일상에 대한 자각을 갖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금 오는 자아를 발견한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과거의 시간에 의미를 두고 의식과 무의식을 통해 저장되어있는 기억들을 이미지화 한다.

연구자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과거의 어떠한 경험들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한다. 주관적이지 않은 순수 기억들은 심리적 이미지를 상징하며 그것들을 하나의 조각으로 나타낸다. 하나의 조각은 종이, 비단, 천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자연의 모습으로 오려내어 순수 기억 하나하나를 표현한다. 연구 작품에서 주로 화면 안의 기억을 표상하는 이미지들은 분할되어 있고 이는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동시간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시각과 후각, 촉각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간과 대상을 탐색하고 그것을 토대로 파악한다. 이런 본능을 통해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은 자신의 정보로 흡수되어 자연스럽게 저장된다. 과거와 현재의 초월적 시공간을 내포하기 위하여 작품의 구성 방식은 반복되는 자연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의 집합은 겹겹이 쌓이는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진화한다. 연구자의 과거 어떠한 기억과 시간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일상 속에서 겹치는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해 콜라주'collage'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현재의 풍경을 마주했을 때 과거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파노라마 형식의 모습들을 이미지화 한다.

기억은 단순히 단편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져 총체적 이미지로 저장된다. 시선은 겹쳐진 기억들이 쌓이며 전개되어 새로운 시공간의 다양한 이미지가 된다. 연구자의 작품은 대부분 동양회화 전통재료인 비단과 종이를 이용한 수묵 기법을 통해 그리고 오린 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연구자가 작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시간'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부터 과거의 경험한 심리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기억은 다양한 조각의 모양들로 오려낸다. 기억을 상징하는 조각들은 또렷하고 확고했던 순수 기억이 다시 의식하여 기억해 내려고 하는 지각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릿해지기도 한다. 바로 어제 경험했던 것처럼 떠오르는 또렷한 기억과 그렇지 않은 흐릿한 기억들까지 모두 서서히 왜곡되어 지는 현상을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화면 구상에 있어서 기억의 조각으로 표현하여 많은 조각들이 모여 순서에 배열되지 않고 실제의 정확한 형태와 달라지며 비례가 맞지 않는 형상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연구자는 본 원고를 통하여 지나간 시간에 대한 회상과 기억들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작업 또한 순수 기억의 원초적인 질문을 내던지며 연구자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들과 함께 기억에 대한 소통으로 자신의 삶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길 작업하고자 한다.



**창밖의산수** 90x380cm 장지에수묵콜라주 2020

## 전북회화회 회원명단

김근미 김준근 김지연 박두리 방방영
박성수 박종갑 박지예 방정엽 송태정
송화정 안순금 오송규 유예빈 윤대라
이명자 이승훈 이우정 이지희 이진숙
이철량 이호억 임진성 임 효 임희성
정미현 조병완 진희란 최창봉

전북회화

2020년 통권 제27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박지예
편집위원 박지예, 송태정, 유예빈
전북회화 2020년 통권 27호
발행일 2020. 12. 11
대표연락처 010-2658-7822
기획,제작 도서출판 디자인북스 010-3677-6690

※ 본전시는(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0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